

강기정 시장 “기술 익히는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폴리텍대학 찾아 ‘AI 광주의 미래’ 대화

AI산업 청년 관심 커…“인재가 힘” 응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청년들이 ‘인공지능(AI)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 중심의 기술교육 기관인 폴리텍대학 현장을 찾아 청년 기술인재들의 현실적 고민과 제안을 직접 듣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위과정 재학생 1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형형색색의 불임폭자(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청년들은 ‘광주의 AI 산업 방향은?’, ‘AI와 관련된 시민교육과 청소년 대상 교육은?’,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 AI와 인간의 공존은?’

‘청년들이 머무는 광주를 만드는 법’ 등 인공지능(AI)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 시장은 준비된 원고 없이 학생들이 던진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청년들과 1950년 이후 권역별 제조업 집적도 등을 말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광주의 전략사업 방향에 대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강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여러분이 바로 광주의 미래 인재”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3일)이 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여는 광주의 미래,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2곳 신규 지정…73곳으로 확대

영암 송산·영광 운암마을 선정…시설·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2곳을 새로 지정했다.

도는 일제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영암 시종면 송산마을과 영광 모량면 운암마을을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기 위해서

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이고, 이 중 유기농 인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두 마을은 ‘유기농 생

태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을 통해 마을당 최대 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아 주민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청정 농촌 환경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이라며 “친환경농업이 마을 단위로 확산

돼 농촌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제도를 도입해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마을을 육성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현재 도 내에서는 총 73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과 체험, 교육이 결합된 친환경 농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심철의 “지하철 공사 지연에 상인 생계 위협”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사진)은 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급조지구 상권이 생계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급조지구 일대가 10월 16일 이후 도로 통제로 차량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고, 공사 펜스가 가계 앞까지 붙어 보행로가 한 사람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조지구 공사구간 앞에 위치한 식자재마트는 9월 대비 10월 매출이 약 2000만원 가까이 감소했고, 의류 매장들은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손으로 셀 정도’라는 수준까지 매출이 급락했다”며 “특히 의류업의 성수기(10~12월)에 고객 유입이 끊긴 것은 단순 불편을 넘어 생



계 기반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공사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 약속한 공기가 지연된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공기 이후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현금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지역화폐·소비쿠폰, 임시 하차공간 확보, 공영주차 지원, 배발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간접 지원 방식은 즉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해남 오시아노호텔 등 5곳

‘전남도 우수건축물’ 선정

전남도는 최근 ‘2025년 전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해남126 오시아노호텔 등 공공부문 2개소와 민간부문 3개소를 선정했다.

전남도 우수건축물은 준공된 건축물 중 지역 건축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 건축물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총 20개소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했으며, 수상 건축물은 불거리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대상을 지난해부터 도민이 많이 찾거나 접하는 공공건축물로 확대했고,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첫 대상작이 선정됐다.

공공부문 대상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위치한 해남126 오시아노호텔(건축주 한국관광공사)이 선정됐다. 전 객실 오션뷰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머무는 순간마다 바다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민간부문 최우수상에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나주의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RC기숙사·식당(건축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 선정됐다. 해당 건축물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채광과 조광을 극대화해 개방적인 공간감을 형성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우수상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광양), 민간부문 우수상에 봉불사명상센터(무안)와 담빛리주택(담양)이 선정됐다.

박정렬 기자 hobu@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 취임…“평화공존 한반도 만들것”

22기 자문위원 2만2824명 위촉…청년비율 역대 최고 3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3일 서울 중구 장충단로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취임사에서 “광복 80년의 빛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국민과 함께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포용과 통합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22기 자문위원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해외에서도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국내외 자문위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달라”며

“불수룩 매력 있는 평화통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국민과 함께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2기를 이끌어 갈 이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을 비롯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2824명으로 제21기 보다 840명(3.8%) 증원됐다.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을 비롯해 직능대표 1만5721명 △137개국 제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여성과 청년(18~45세) 비율은 각각 40.0%와 30.5%였다. 특히 청년 자문위원 비율은 역대 최고라고 민주평통사무처



는 설명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이번 자문위원 가운데 국민 참여공모를 통해 위촉한 자문위원은 234명이다.

이 가운데 100여 명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속의토론 진행을 돕는 활동가로 위촉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구성된 만큼 부의장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5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방향과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송형곤 “대한민국 우주산업 심장은 고흥”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사진)이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 및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우주산업 거점 구축사업의 중심지를 전남 고흥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2032년 첫 민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제2우주센터는 단순한 발사 시설이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 운용과 민간 상업 발사, 우주물류 시장 진출을 이끌 핵심 전략기지”라며 “그 최첨단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나로우주센터의 품은 전남 고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전에 는 항공우주연구원,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있지만, 전남만 산업화 기능에서 소외된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다”며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고흥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고흥에 설립될 경우 제2우주센터와 연계해 연구·시험·발사·산업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형 우주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박종균 “30년 방치 지산유원지, 동구 나서야”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사진)이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지산유원지 문제에 대해 동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3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산유원지와 신양파크호텔의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1978년 개장한 지산유원지는 1994년 부도 이후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리프트와 모노레일만 운영되고 있을 뿐, 유원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나 광주시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빠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 쓰레기로 뒤덮인 저수지 주변과 장기간 청소 흔적이 없어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화장실 관리상태를 지적하며 시급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활용방

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광주시 방침만 바라보다간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